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5]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김완일 목사 / 1994

성경공부 인도자가 사용하는 말은 기록된 성경언어가 아니다. 그렇다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평범한 말도 아니다. 성경공부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신언(神言)이다. 그러므로 성경공부 인도자는 구체적이고, 어떤 영상을 나타내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적용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고 분명하여, 인도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자의 말은 참여자의 영과 마음을 되살리는 생동적인 힘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영적, 정신적으로 힘있는 단어들 곧 「생명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성경공부 인도자가 나누어야 할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즉, 풍요롭고 넘쳐흐르며 결코 정복될 수도 고갈될 수도 없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쁜 언어와 답답한 전달은 그가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사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성경공부에서 사용되는 말은 생명과 삶,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깊이가 필요하다.

성도들은 진짜 중요한 주제나 문제, 의문 등에 의해서만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다. 깊이가 없는 성경공부 인도자는 참석자들의 감정만을 겨냥함으로써 감동을 주려고 한다. 예를들면 하나님의 사랑, 조국애 등과 같은 소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감정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어는 소박한 말, 즉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 분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솔직한 말이며 성도들이 항상 느끼는 근심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말이란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겪는 여러 문제점들을 직접 파고들어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그 문제들을 다루어 주는 말을 의미한다.

성경은 놀라운 언어의 현상이다. 성경보다 더 구체적인 언어로 쓰여진 책은 없다. 예레미야 14:2~6의 유대땅 전역에 퍼진 가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이를 잘 나타내어 준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길으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 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성경은 결코 추상적, 개념적, 신학적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구체적인 언어로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와같이 성경공부 현장의 언어가 얼마나 구체적이여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증언하고 계신다.
(계속)

* 출처 - 온누리신문